

의대생을 위한 리더십 교육

김 영 명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의료는 더 이상 구멍가게식 개업이 주가 아니라 점차 조직을 가진 기업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이미 개업한 의사보다도 병원에 봉직하는 의사의 수가 많아지고 있지만, 개업을 하더라도 최소한 간호사는 물론 각종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하며 또한 접수와 전산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원도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점차 단독 개업에서 집단개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쟁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의료가 시혜적 성격에서 사회적 권리와 의무로 느껴지면서 의사들의 역할과 위상을 보장받기 위하여서는 집단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의사도 환자 보는 능력만 있으면 되던 세상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이끌어갈 능력 있는 지도자를 갈망하게 되었다. 연세의대는 일찍부터 그 역사성과 위상에 맞게 우리 의료계의 지도자를 양성함을 학교의 목표로 삼아왔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 연세의대의 졸업생의 진로를 분석하여 본 결과 생각보다는 별로 의료계의 지도자를 양성하지 못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 앞으로의 의료는 국가정책과제 중 주요과제가 될 것이며 시민의 관점에서 비중이 높은 과제가 될 수밖에 없어 의사만의 뜻에 맞는 의료가 될 수는 없

을 것이다. 따라서 의사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설득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의료를 주도할 수 있는 지도자적 자질을 필요하게 되었다. 이제 의사는 환자만 잘 치료하면 되는 의사에서 국가차원의 정책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는 물론 의학지식의 공유시대에 살면서 환자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교육자적 의사, 의료조직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경영자적 의사 등 리더십을 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의료계의 지도자는 정치적인 지배자나 기업적인 관리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의료산업에서의 구성원은 대부분이 독립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격소지자들이어서 종적인 명령관계보다는 횡적인 역할 분담의 성격이 많은 조직이어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보다는 동업자적인 역할분담적 조직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보다는 의료계에 특성에 맞는 지도자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자는 책을 많이 보고 시험성적을 잘 따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훈련을 통하여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최근에 관심을 가지는 PBL이나 Role play 같은 소집단 활동이나 각종 한 내외 집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배우게 될 것이다. 이제 논자가 그간 한 내외 여러 가지 집단에서 활동하면서 늘 부족하게 느껴보았던 지도자적 요건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해보겠다.

1. 의사소통법

어느 조직에서나 마찬가지로 특히 병원과 같이 서로 다른 전문분야의 의사들이 과나 교실을 중심으로 전문화되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의사간의 관계는 물론, 간호와 의료기술 및 사무직 등의 이해와 협조를 최대화하기 위하여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극히 어려운 상태이다. 이러한 훈련을 위하여서는 각종 회의의 진행이나 토론모임 등을 위시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2. 의사결정법

이제는 더 이상 상부의 몇 사람이 소신과 예단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따르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 그렇다고 다수 가결이나 강압적인 집단의 파업성 위협에 의하여 결정되어서도 안 된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되 목표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의사결정을 객관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전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3. 효율적 업무 추진법

의료산업에서의 업무 추진은 강한 힘을 바탕으로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와 이익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격려 즉 facilitate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리더는 냉철한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방향과 목표를 선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강한 의지력을 가지되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인내력과 유연성을 가지고 속도의 완급을 조정하며 공정성을 잃지 않고 늘 성실하게 원칙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성품을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이해력과 설득력 및 감화력이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환자를 감동시키고 믿게 하는 것 못지않게 구성원들에게도 존경 받는 지도자가 되도록 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공인적 자세

현재도 이미 그러하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평생을 유지할 수 있는 직책이나 지위가 없어질 것이다. 모든 것이 임기가 있고 경쟁이 있기 마련이며 물러난 후에는 반듯이 냉혹한 평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리더가 되려는 무모한 생각도 버려야 하지만 더욱이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꾀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몇 사람이 공정치 못한 방법으로 사사로이 일을 도모하는 일은 처음부터 생각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도모하는 훈련을 하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하리라는 신념을 가진 지도자를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